

**동아시아연구원(EAI)과言論NPO가  
「제6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엠바고] 본 내용에 대한 인용은 라디오·텔레비전·통신사·웹 등에서는 2018년 6월 18일(월) 15:00 이후, 신문의 경우 6월 19일(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시시오.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발표하므로 보도시점에 대해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제6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한국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과 일본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 (대표: 쿠도 야스시)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일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2018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6월 18일 오후 2시 조선히호텔에서 발표한다.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는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였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본 조사는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8년 조사의 주요 결과는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조선히호텔 기자회견장에서 50여명의 국내외 외신기자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본 기자회견의 발표 자료는 (1) 본 요약발표문 (2) 주요 데이터 테이블 (3) 주요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외신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소: 서울 웨스틴조선히호텔 코스모스&바이올렛룸
- 발표: 손열(동아시아연구원), 쿠도 야스시(겐론NPO)

본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이후 동아시아연구원과 겐론NPO가 공동으로 6월 22~23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6회 한일미래대화'에 보고되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6회 한일미래대화를 통해 양국의 민간 전문가와 지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색된 한일관계 속에서 양국 국민의 인식 차이를 좁히고 양국 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 (※'제6회 한일미래대화' 개요에 대한 별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 ◆ 제6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주요 결과

### 1. 반대로 가는 한국과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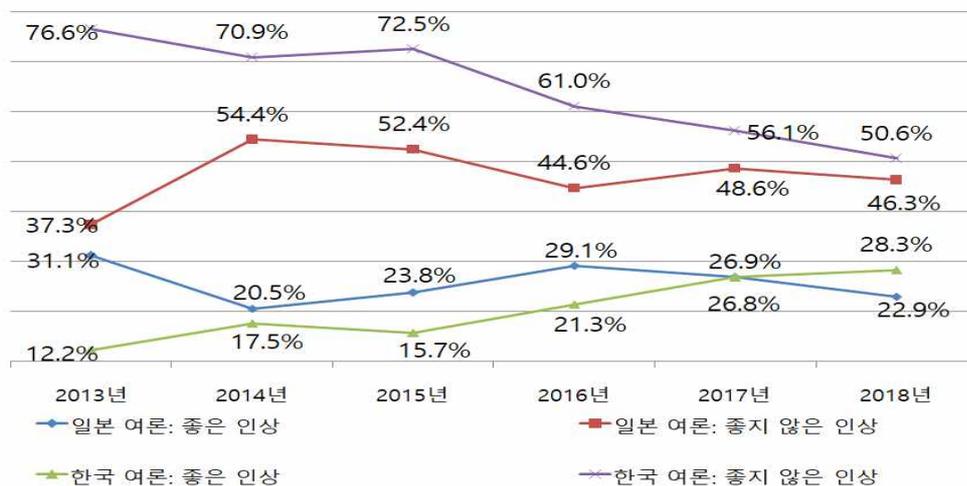
-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인상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 2013년 12.2% → 2018년 28.3%
-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상은 악화 경향** — 2013년 31.1% → 2018년 22.9%

일본에 대한 인상을 '좋다', '대체로 좋다'로 응답한 한국인은 21.3%(2016년)→26.8%(2017년)에 이어 올해도 28.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다'('대체로 좋다' 포함)가 2017년 대비 4%포인트 하락하고, 어느 쪽도 아니다가 6.3%포인트 증가, '좋지 않다'('대체로 좋지 않다' 포함)가 2.3%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2018년은 여론조사 사상 최초로 한국의 대일 호감도와 일본의 대한 호감도가 역전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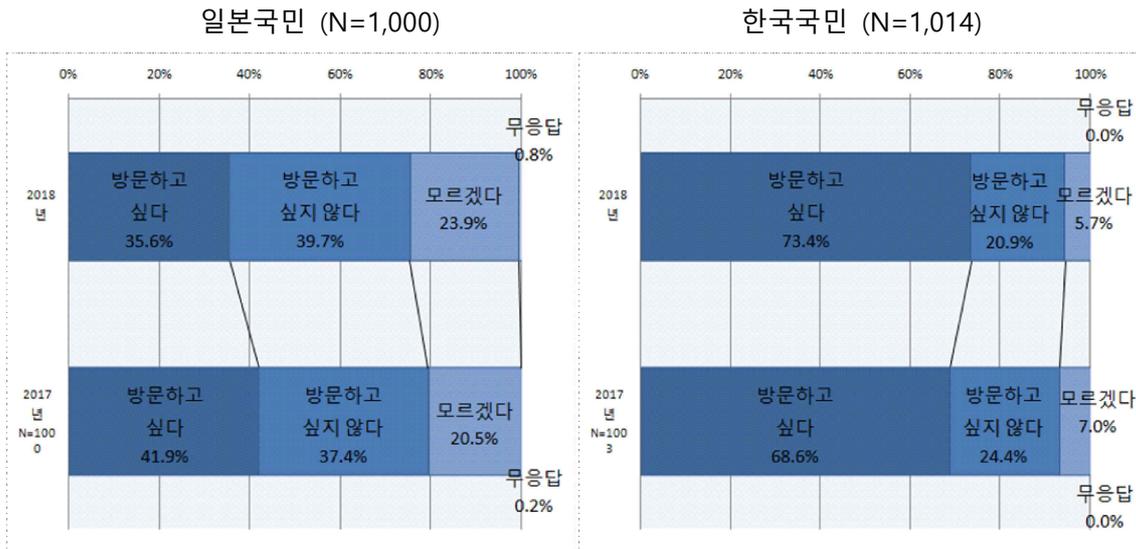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인식은 2013년 76.6%에서 2018년 50.6%로 대폭 감소한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부정적 인식은 2013년 37.3%에서 2018년 46.3%로 좀처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대국에 대한 방문 의사 역시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일본에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한 국민이 2017년 68.6%에서 73.4%로 4.8%포인트 상승했지만 일본의 경우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가 2017년 41.9%에서 2018년 35.6%로 감소했다.

[그림1]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13~2017)



[그림2] 상대국 방문의사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문제'로 한국 70.0%, 일본 69.3% 여론이 일치하였으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는 두 국가가 의견을 달리했다. 한국인은 일본인의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73.5%)'를 손꼽았지만, 일본인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어서(50.7%)'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하였다.

## 2.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는 상대국 방문여부, 연령, 학력수준과 관련됨

상대국의 호감도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 양국 모두 주요 요인으로 상대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호감도가 높았다. 방문경험으로 대표될 수 있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공감 기회의 확대가 선호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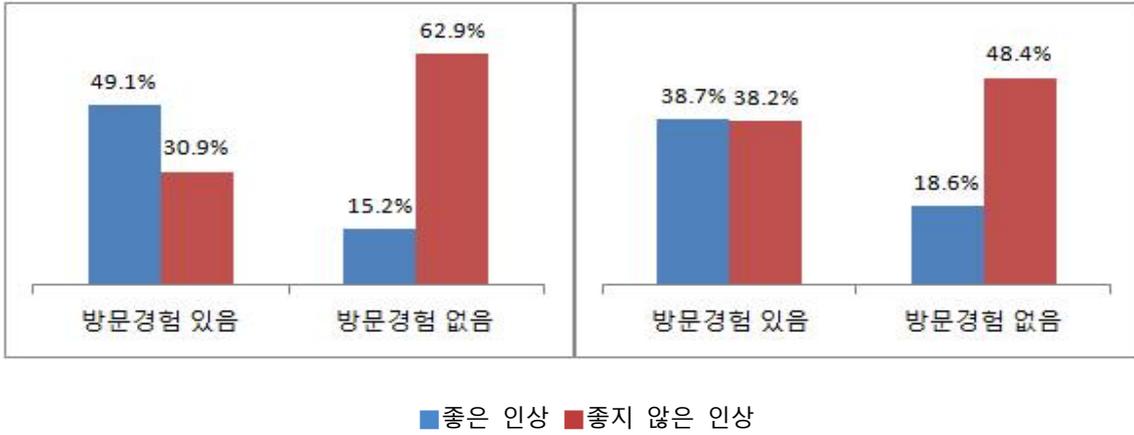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연령과 학력에 따라서도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젊은 연령층이 장/노년층에 비해 일본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었다. '좋은 인상'과 '대체로 좋은 인상'을 합한 긍정적인 호감도는 19-29세에서 38.2%를 보여 준 반면, 30-39세 30.4%, 40-49세 28.7%, 50-59세 27.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여 60세 이상 층에서는 20.2%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력에 있어서도 고학력일수록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에서는 19.8%가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졸은 24.4%, 전문대 재학 이상 층에서는 34.3%로 점차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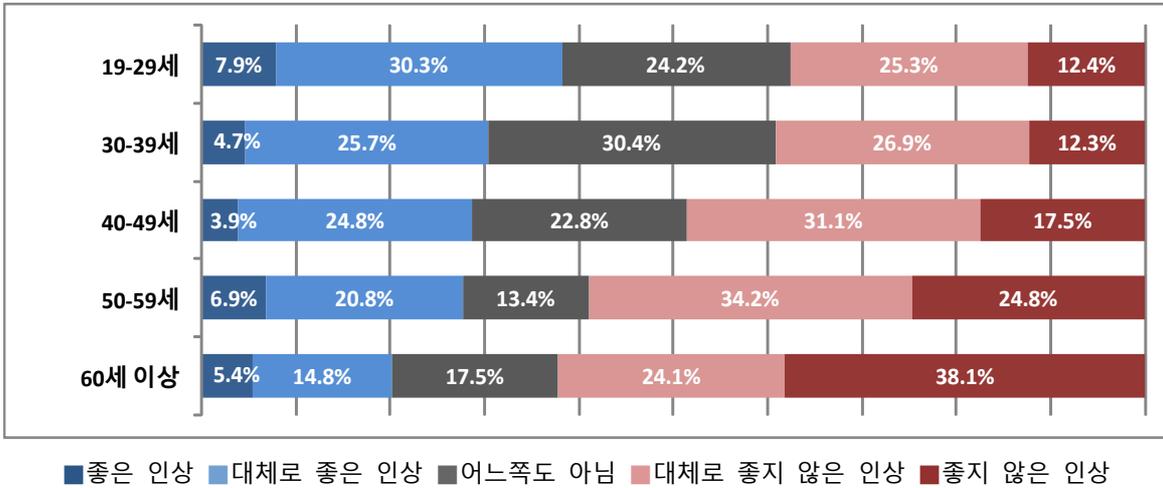
[그림3] 방문경험에 따른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한국국민 (N=1,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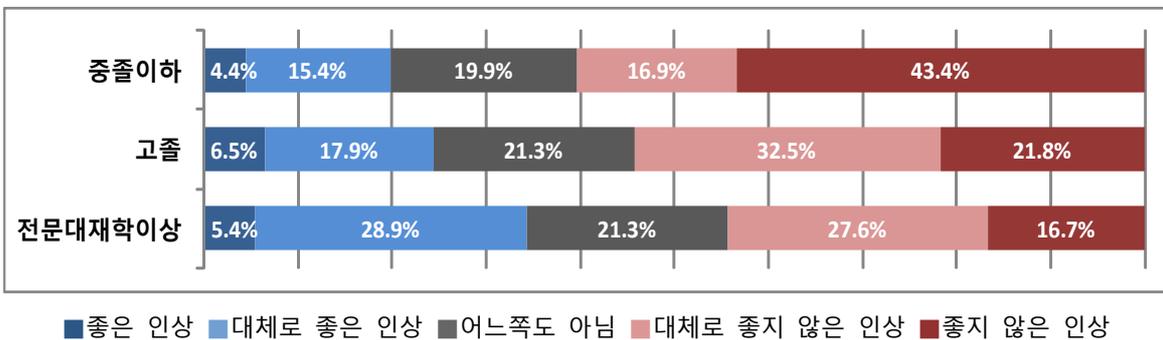
일본국민 (N=1,000)



[그림4] 한국인의 연령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



[그림5] 한국인의 학력에 따른 일본에 대한 호감도 차이



3. **한일관계 개선 조짐 : 한일 국민 현재 한일관계 '나쁘다' 의견 6년 만에 최저, 미래 한일관계 '나빠질 것이다'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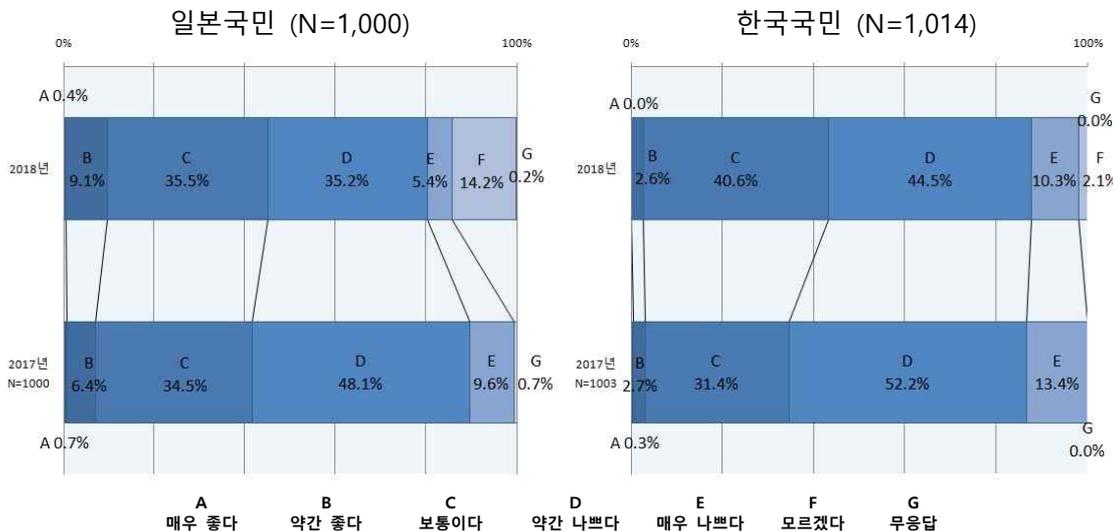
- 현재 한일관계 '나쁘다'는 의견 6년 만에 최저치
-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양국 '중요하다' '비교적 중요하다' 인식 줄어, 여전히 한국인 열 명 중 여덟 명, 일본인 절반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  
— [한국] 2017년 89.9% → 2018년 82.4%, [일본] 2017년 64.3% → 2018년 56.3%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좋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없었으며, 일본인은 0.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약간 좋다' 역시 한국 2.6%, 일본 9.1%에 그쳤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한국인은 54.8%, 일본인은 40.6%로 작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한국인 10.8%포인트, 일본인 17.1%포인트 감소), 양국 국민이 한일관계가 조금씩 개선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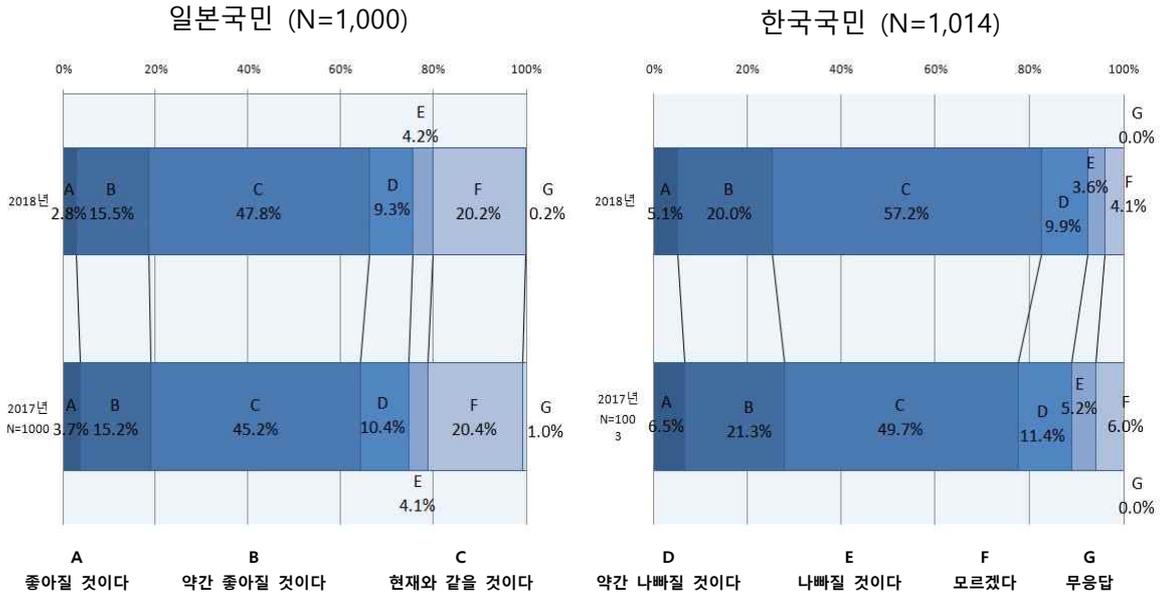
이러한 한일 국민의 인식 변화는 한일관계 전망에 대한 응답에서도 나타나는데 '미래의 한일관계가 나빠질 것이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이 작년 16.6%에서 올해 13.5%로, 일본인이 작년 14.5%에서 13.5%로 감소하였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줄어들었음에도,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57.2%, 일본 47.8%).

부정적인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응답한 한국인은 82.4%로 열 명 중 여덟 명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본인도 절반 이상(56.3%)이 한일관계를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림6] 현재의 한일관계



[그림7] 미래의 한일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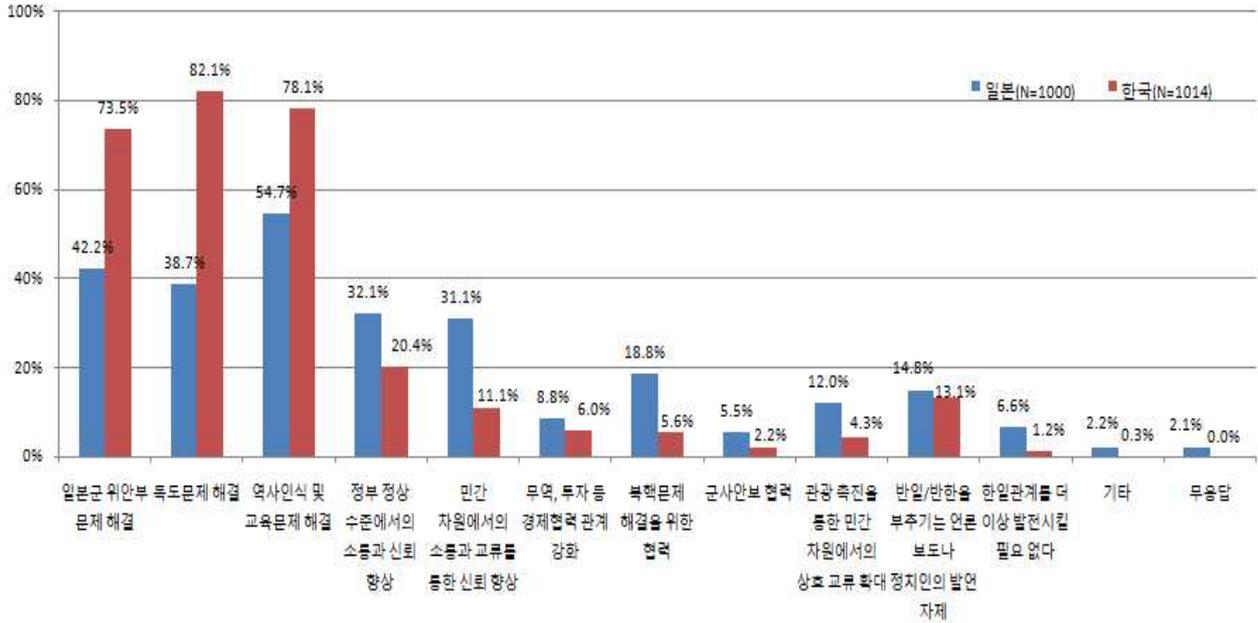
**4. 영토, 역사, 위안부 문제 여전히 한일관계발전에 장애물로 남아**

-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한일 양국 국민 작년과 변함없이 역사,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꼽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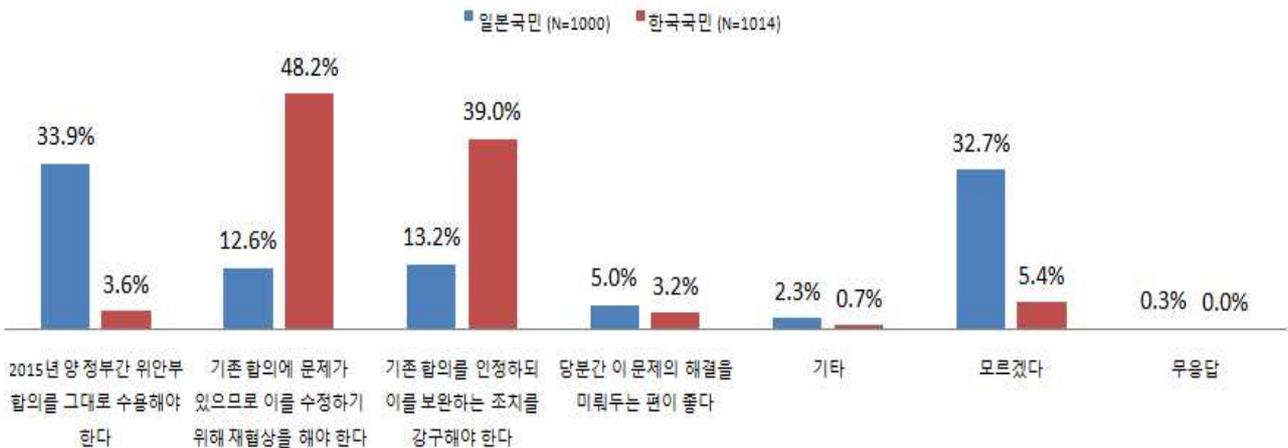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양국 국민의 인식에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인은 2007년에 이어 독도문제 82.1%(2017 82.1%), 역사인식 및 교육문제 78.1%(2017년 75.8%), 일본군 위안부 문제 73.5%(2017년 75.8%)를 관계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일본인도 역사문제 54.7%(2017년 49.0%), 일본군 위안부문제 42.2%(2017년 42.6%), 독도문제 38.7%(2017년 39.2%) 순으로 꼽았다.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한국과 일본 반대 양상 보여, 일본 부정적 평가 2.1%포인트 증가, 한국 부정적 평가 9.7%포인트 감소
- 한국, 위안부 합의에 긍정적 평가 이유로 '더 이상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발목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꼽고, 부정적 평가 이유로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 선택
-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본은 기합의 수용, 한국은 재협상 혹은 보완 조치를 선호

[그림8]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과제



[그림9]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



일본인중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는 7.0%로 작년에 비해 1.8%포인트 줄었으며, '일정부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응답한 국민도 31.8%로 작년에 비해 1.2%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이 경미하게 줄었으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4.6%포인트,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응답률은 5.1%포인트 줄었다. 양국 모두 '어느

‘쪽도 아니다’ 응답자가 한국(30.3%), 일본(32.7%)로 2017년 조사 결과인 한국(23.2%), 일본(32.2%)보다 증가하였다. 한국에서만 진행된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 이유로 각각 ‘더 이상 역사문제로 한일관계가 발목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67.8%)’,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합의했기 때문에(77.0%)’ 응답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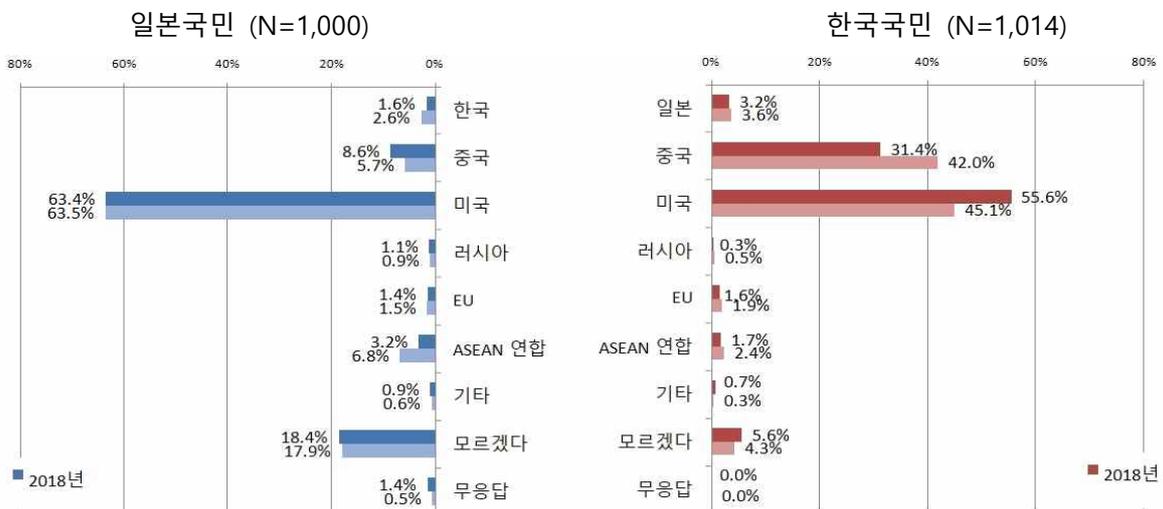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한국의 경우 ‘기존 합의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기 위해 재협상을 해야 한다’와 ‘기존 합의를 인정하되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가 각각 48.2%, 39.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87.2%의 한국 국민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5년 양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가 33.9%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고 응답한 일본인도 32.7%였다.

### 5. 한국의 대미, 대중 인식 변화 추세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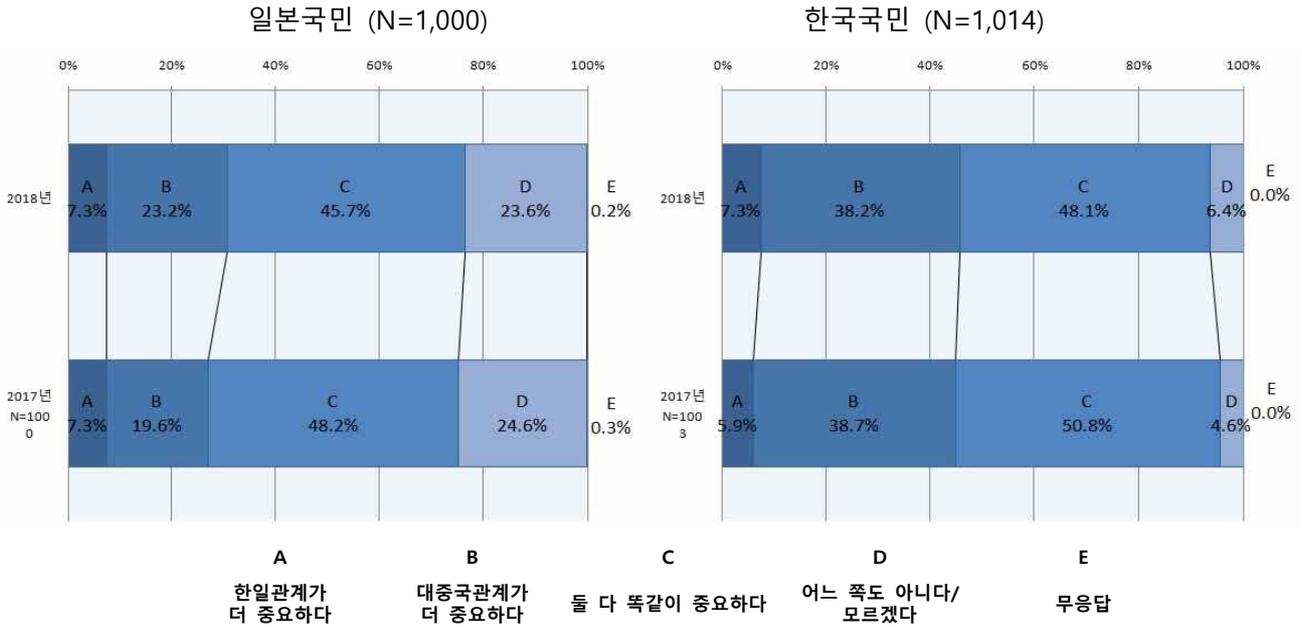
- 중국보다 미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 한국 65.8%, 일본59.9%로 절반 넘어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 급감 추세, 중국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감소 추세

한일 양국민은 ‘중국과의 관계가 한일관계보다 중요하며, 한국은 일본에 비해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일본은 중국에 비해 한국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기존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2013년 36.2% → 2018년 25.2%), 또한 중국의 중요성 인식도 하강하였다(2017년 42.0% → 2018년 31.4%). 반면 미국에 대한 중요성은 2017년 45.1%에서 2018년 55.6%로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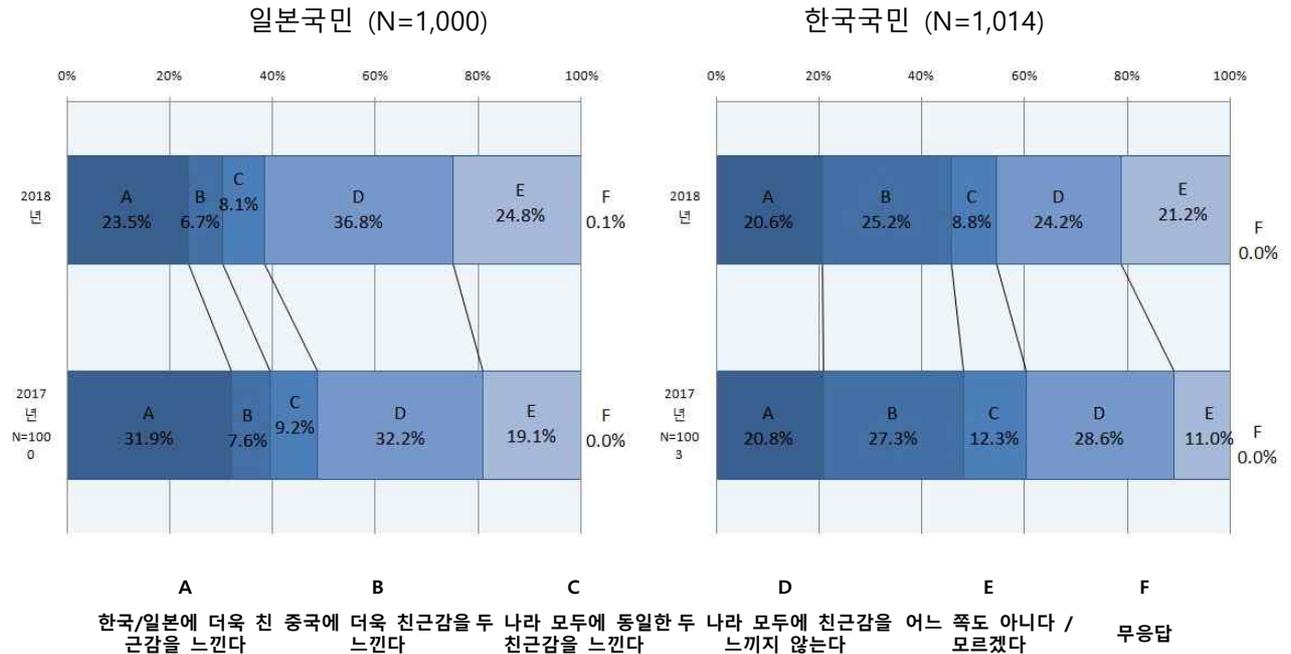
[그림10]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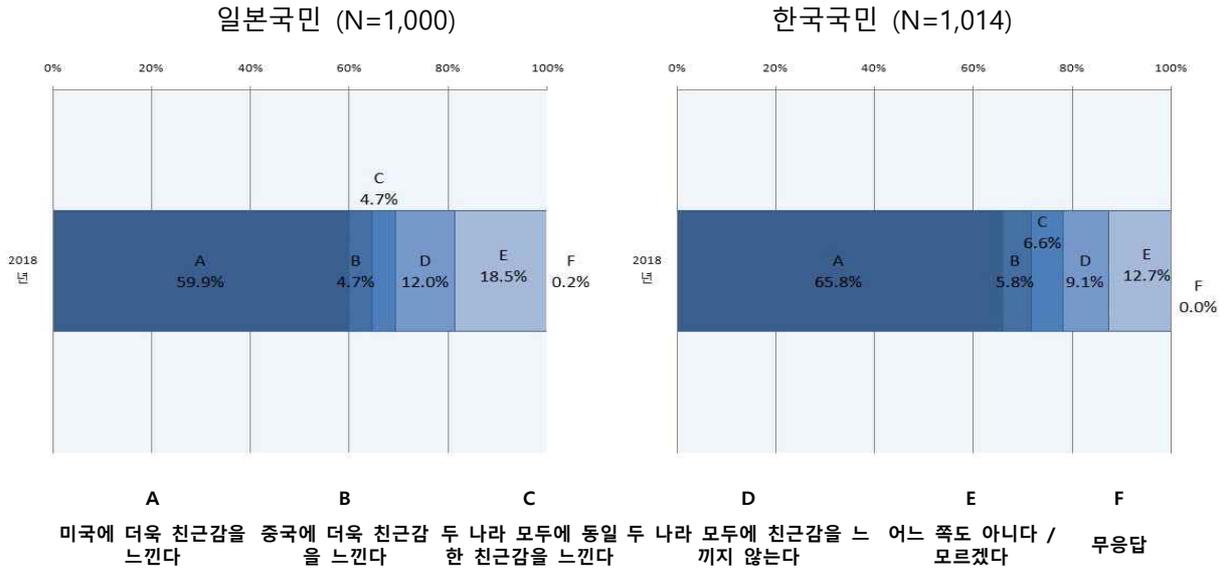
**[그림11] 한일관계와 대중국관계**



**[그림12] 상대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그림13] 미국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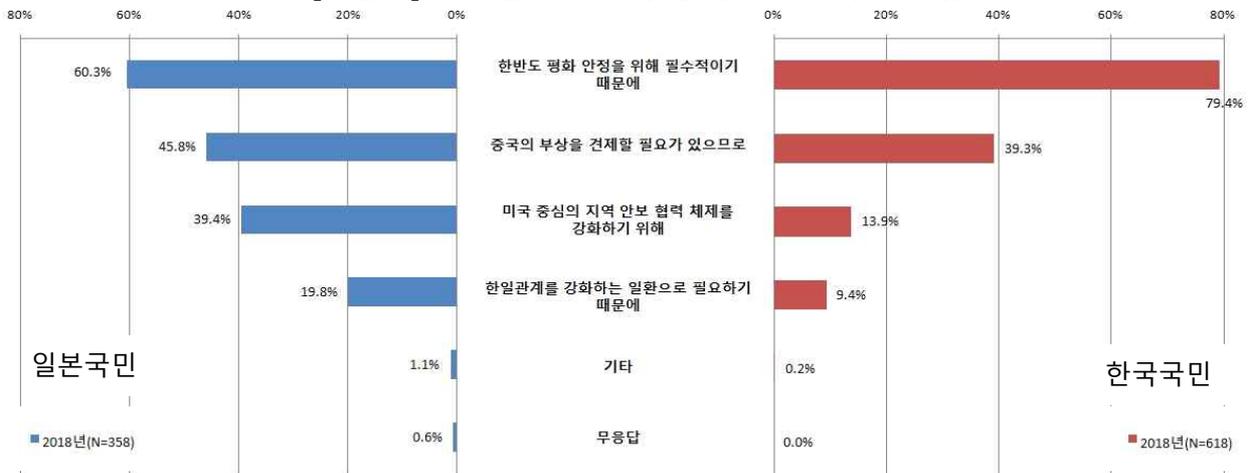
자국의 미래를 위해 상대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한국 48.1%(2017년 50.8%), 일본 45.7%(2017년 48.2%)가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한국 38.2%(2017년 38.7%), 일본 23.2%(2017년 19.6%)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일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양국 모두 7.3%에 머물렀다. 한국의 대 중국 친근감 하락추세와 더불어 한중 관계의 중요성 역시 감소하였다(2016년 47.1%→ 2017년 42.0%→ 2018년 31.4%).

**6. 한일 양국민 모두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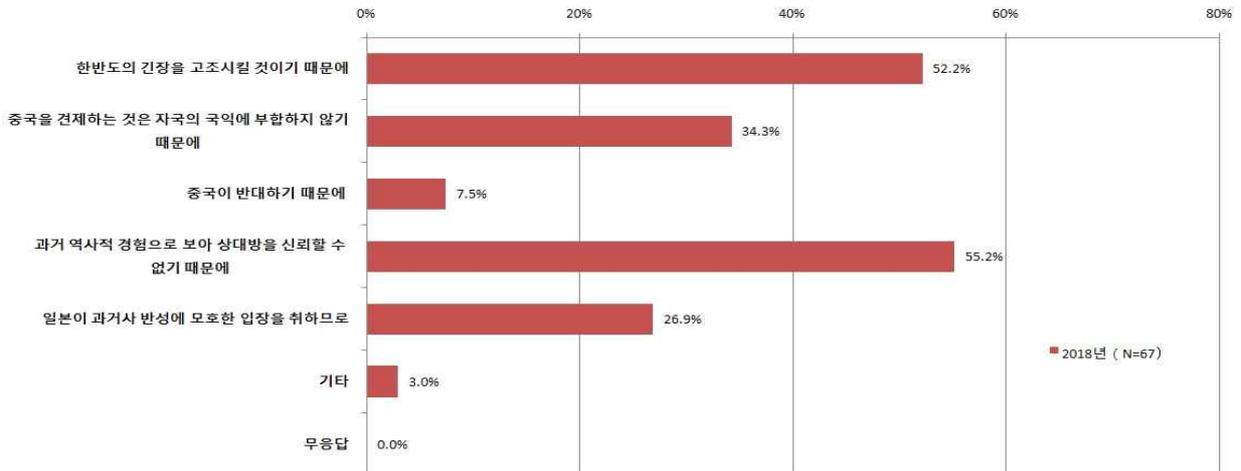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이 한국 60.9%(매우 그렇다 14.5%, 일정부분 그렇다 46.4% 포함), 일본 35.8%(매우 그렇다 7.3%, 일정부분 그렇다 28.5% 포함), 부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이 한국은 6.6% (매우 부정적이다 0.7%, 대체로 부정적이다 5.9% 포함), 일본 18.7%(매우 부정적이다 5.3%, 대체로 부정적이다 13.4% 포함) 로 양국 모두 보다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한국과 일본이 대체로 유사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가 꼽혔으며(한국 79.4%, 일본 60.3%),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가 한국 39.3%, 일본 45.8%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미국 중심의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가 뒤를 이었다(한국 13.9%, 일본 39.4%).

**[그림14]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이유**



**[그림15]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 (한국)**



## 7. 북한 문제에 대한 양국민간 의견 차이 확인

-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한국 23.2%, 일본 65.1%
-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에 한국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45.6%), 일본은 현재 합의로는 판단할 수 없다(39%)
-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될 것, 한국은 62.7% 일본은 15.3%로 엇갈린 의견 보여
- 이상적인 한반도의 미래모습에 한국은 “통일”, 일본은 “현재 두 국가 체제 유지 (‘모르겠다’ 제외)” 응답이 가장 많아
-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경우 핵무장에 대해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한국국민의 지지는 대폭 감소하였다.

한일 양국민은 북핵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 1년전과 달리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7년 일본국민의 68.9%, 한국국민의 71.3%란 다수가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렸으나, 불과 일년후 일본의 경우 65.1%로 미세한 감소를 보인 데 반해 한국의 경우 23.2%로 무려 48.1%가 감소하였으며 5년 이내 해결 예상은 21.4%,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인 2년내 해결도 13.8%의 응답율을 보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합의의 실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합의대로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다’가 13.7%, 일본은 1.2%로 드러났으며, ‘결국 비핵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응답에 한국 8.9%, 일본 17.9%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비핵화 노력은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다소 긍정적 입장이 과반수에 육박(45.6%)한 반면, 일본의 경우 ‘현재 합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이 다수(39.0%)이었다.

10년 후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2016년 한국 44.0%, 일본 40.2%), 2017년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한국 31.2%, 일본 26.3%). 반면 2018년에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개선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한국인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인은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는 응답이 34.4%로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한반도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국인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33.7%로 가장 높고,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남북연합 수립’이 24.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7.8%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제외한 응답 중 ‘관계 개선 없이 현재의 두 국가 체제로 공존’이 21.6%로 가장 높았다.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시 한국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일본

국민이 '반대'(66.9%)한다고 응답했으나 이는 2017년에 비해 11.9%포인트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자 수는 2017년 3.7%에서 2018년 7.5%로 2배 증가했다. 한국인의 경우 일본과 반대 양상을 보였다.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2017년 26.7%에서 2018년 50.3%로 대폭 상승했으며, 반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017년 67.2%에서 2018년 43.3%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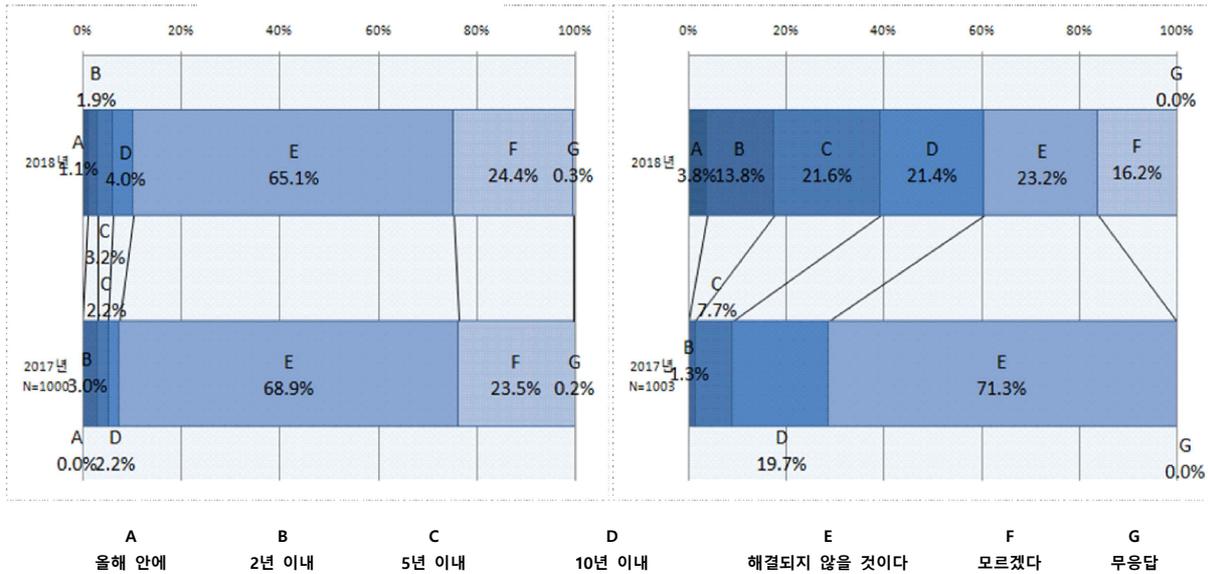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지지 않을 시 일본이 핵무장 하는 것에 대해 2017년에는 74.7%의 일본인이 '반대'했지만, 2018년에는 65.5%가 핵무장에 '반대'하여 감소추세를 보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의 경우 2017년 9.0%에서 2018년 11.3%로 증가했다. 한국인의 경우 일본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증가했다(2017년 75.8% → 2018년 81.3%). 한편 '찬성'한다는 응답은 2017년 대비 2.8%포인트 감소했다(2017년 13.3% → 2018년 10.5%).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 한국인은 핵무장에 반대하는 모습, 일본인은 핵무장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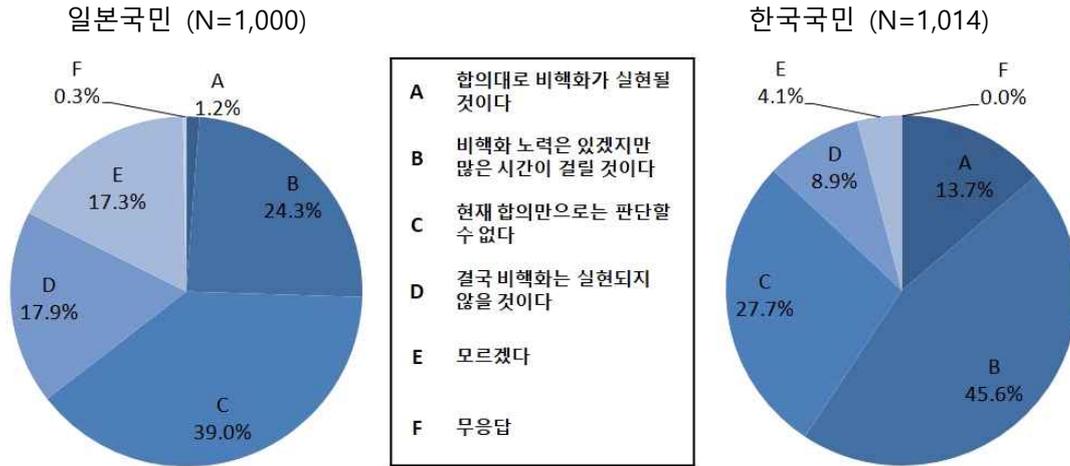
**[그림16]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 예측**

일본국민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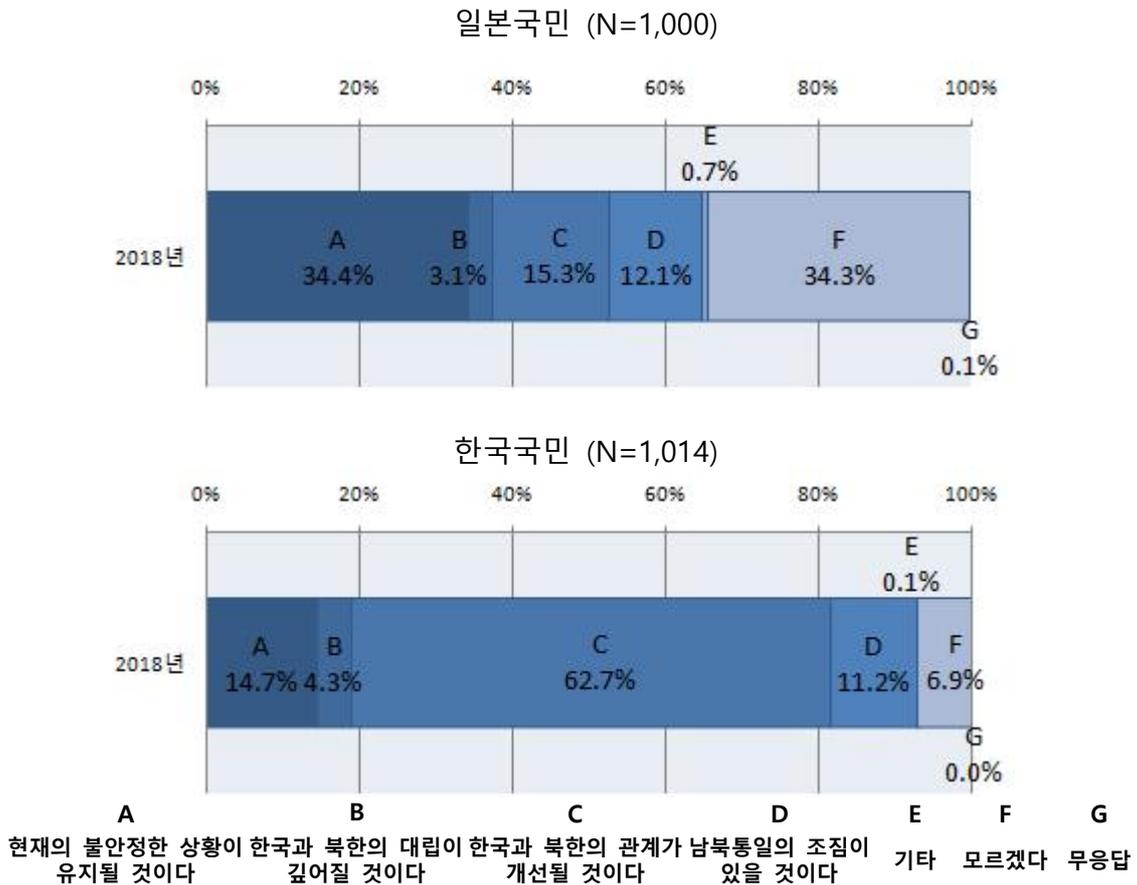
한국국민 (N=1,014)



[그림17]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능성



[그림18]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



## ■ 2018년 제6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개요

한국의 민간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와 일본의 공인 NPO인 겐론NPO(言論NPO)는 한일 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식조사를 2018년 5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본 조사의 목적은 한일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현황 및 그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여 양국 국민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본 조사 결과는 두 기관이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5월에 창설한 민간 중심의 한일 전문가포럼(제6회 한일미래대화: 2018. 6. 22-23 개최 예정)에서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한국측의 여론조사는, 전국의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5월 21일부터 31일까지 조사원에 의해 면대면 면접 방식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14 명으로,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졸 이하가 5.9%, 중졸이 7.5%, 고졸이 41.2%, 대학 재학/중퇴(전문대학 포함)가 11.5%, 대졸이 31.8%, 대학원 이상이 2.1%였다.

일본측의 여론조사는,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방문유치회수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유효 회수 표본 수는 1,000명이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중졸이 9.0%, 고졸이 44.2%, 단기/전문대졸이 20.3%, 대졸이 22.6%, 대학원 졸업이 1.5%이었다.

■ **조사개요**

	일본 여론조사	한국 여론조사
조사지역	일본 전국	한국 전국
조사대상	18세 이상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집방법	일본 전역 50개 지점. 한 지점당 표본 수는 20명. 전국의 성·연령구성비에 맞춰 할당	전국을 17개 행정구역별 광역단체 기준으로 분할. 각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수 결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에 맞추어 할당
조사방법	방문유치회수법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
조사기간	2018년 5월 19일 ~ 6월 3일	2018년 5월 21일 ~ 5월 31일
유효회수표본	1,000명	1,014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응답자 속성	남성 48.3%、여성 51.7%	남성 49.7%、여성 50.3%
	초·중졸 : 9.0% 고졸 : 44.2% 단기·전문대졸 : 20.3% 대졸 : 22.6% 대학원졸 : 1.5% 기타 : 1.7% 무응답 : 0.7%	초졸 : 5.9% 중졸 : 7.5% 고졸 : 41.2% 대학재학·중퇴(전문대 포함) : 11.5% 대졸 : 31.8% 대학원 이상 : 2.1%
	20세 미만 : 2.4% 20~29세 : 12.0% 30~39세 : 14.7% 40~49세 : 17.4% 50~59세 : 14.6% 60세 이상 : 38.9%	19~29세 : 17.6% 30~39세 : 16.9% 40~49세 : 20.3% 50~59세 : 19.9% 60세 이상 : 25.3%
조사기관	輿論科学協會	(주)한국리서치 (대표이사: 노익상)

## ■ 2018년 제6회 한일미래대화

한일미래대화는 2013년 5월 동아시아연구원(EAI)와 겐론NPO가 공동으로 창설한 민간대화의 장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강한 불신과 상호 이해의 결핍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민간 대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양 기관은 양국 국민의 인식 동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나아가 매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 시민사회가 공개적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한일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AI와 겐론NPO는 각각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여 미국 외교협회 (CFR)가 주관하는 세계싱크탱크평의회(Council of Councils: CoC)의 상임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CoC창립 총회에서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여 동아시아연구원, 일본을 대표하여 겐론NPO가 창립 멤버로 선정되었습니다. CoC참여 과정에서 겐론NPO와 동아시아연구원은 불안정한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안정화하고, 악화되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한일미래대화'라는 민간주도의 새로운 전문가포럼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며, 올해로 6회 째를 맞습니다.

- 【동아시아연구원】 조사결과 및 EAI에 대한 소개는 <http://www.eai.or.kr>
- 【겐론NPO】 조사결과 및 겐론NPO에 관한 소개는 <http://www.genron-npo.net>
- 【문의】 한일미래대화 한국측 준비관련 문의는 김가현 EAI 대외협력팀장(ghkim@eai.or.kr)

동아시아연구원(EAI)  
사무국장 신영환  
연구기획실 연구원 백진경  
TEL: 02-2277-1683, FAX: 02-2277-1684  
MAIL: yhshin@eai.or.kr; j.baek@eai.or.kr

겐론NPO  
편집국 프레스/오피서 미야우라  
편집국 프레스/오피서 와다  
TEL: 03-6262-8772, FAX: 03-6262-8773  
MAIL: info@genron-npo.net